



제목	영화 <300>에 나타난 서구중심주의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(역사문화연구 36)
발행일	2010. 6. 30.
저자	박재영
출판국가	대한민국
페이지수	255-291
ISBN 또는 ISSN	1598-6454

내용 요약

영화 <300>은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. 논란의 배경은 ‘동양 문화에 대한 몰염치인가, 영화라는 창작적 허구에 대한 몰이해인가’의 대립구도에서 비롯되었다. 이란에서는 이 영화가 그들의 선조인 페르시아인을 모독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되기도 하였다.

영화의 원작자 프랭크 밀러와 영화감독 잭 스나이더는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난에 대해 ‘소재만 빌려왔을 뿐 역사를 다룬 것이 아니었다’고 항변하지만, 영화가 하나의 예술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. 그러한 관점에서, 영화 <300>이 단순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, 역사적 스테레오타입 분석방법을 적용시켜서 영화를 통해 드러내려는 원작자와 감독의 의도는 무엇인가, 그리고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관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와 스테레오타입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역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담론의 장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.